유의사항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모든 자료는 신송고 2학년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종료 시 자료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신송고 2학년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내려 받은 자료는 다른 사람 및 일체의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을 준수해주십시오.

출처: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이삼형 외 5인, 지학사 2022.03.01

티솔루션(#선생님을 위한 수업 지원 플랫폼# (jihak.co.kr))교과서 자료실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1) 고대 국어

교과서 p.208



통일 신라 경주 중심의 동남 방언을 기반으로 함.



음은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만 있고, 된소리 계열이 없음.

어휘 한자어의 비중이 커짐

표기법: 한자 차용 표기법

① 원리



물수

석독(釋讀) 음독(陰讀)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





② 고유 명사 표기

居柒夫或云荒宗 (원문)

거칠부 혹은 황종이라 한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44

	居	柒	夫	荒	宗
뜻(석독)	살	일곱	사내	거칠	마루
음(음독)	거	칠	부	황	종

길다 영

永 司郡本 吉 司郡 (원문)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현대어 역)

- 『삼국사기』, 권 34



③ 구결·이두·향찰

구결: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

2. 다음 『동몽선습』의 표기를 바탕으로 구결 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天地之間萬物之中 唯人 最貴 所貴乎人子 以其有五倫也 (한문) 天地之間萬物之中 建 唯人伊 最貴為尼 所貴乎人子隱 以其有五倫也羅 (구결문) 천지지간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구 호니 소귀호인지는 이기유오륜이라 (독법)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 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어 역)

(1) 위 구결문의 밑줄 친 부분이 현대어 역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자.

厓	伊	爲尼	隱	羅
에	0	하니	<u>은</u>	다



(2) 『동몽선습』은 한문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의 교재로 지은 책이다. 한문에 구결로 표 기한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하여 말해 보자.

우리말에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와 어미들이 발달해 있어 이를 통해 문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문은 그렇지 않아 한자의 뜻을 알아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문의 원래 문장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나 어미를 달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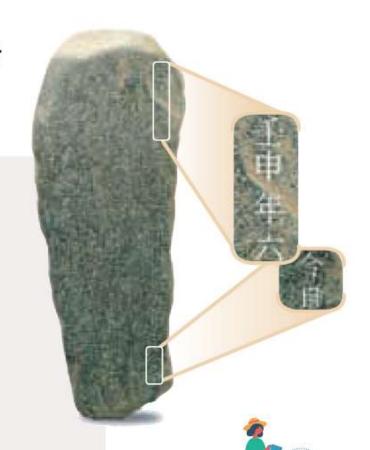
이두: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음.

3. 다음은 초기 이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임신서기석'의 일부이다. 아래의 활동으로 이두 표기에 관해 탐구해 보자.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u>今自</u>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현대어 역)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지켜 지니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u>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u> 맹세한다.



(1) 다음은 밑줄 친 부분을 한문의 어순대로 고친 것이다. 이를 보고 이두 표기와 한문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이두의 어순 표기는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기함

(임신서기석'의 어순 한문의 어순 지금으로부터 수 自 이제 금, 어조사(로부터) 자 自수 기계 금, 어조사(로부터) 자 보고 의를 얻을 것이라고 한 기계 가 하고 있었을 때 가 하고 있었다. 기계 가

(2) 이두의 표기 방식은 뒤에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본격적으로 표기한 향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신서기석'의 표기법이 가지는 의의를 말해 보자. 초기 이두의 모습을 보여줌



향찰: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

+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

가장 발달한 형태의 차용 표기법이나 읽고 쓰기의 방식이 복잡 → 향가 소멸과 함께 향찰도 사라짐



4. 다음 「도솔가」의 표기를 바탕으로 향찰 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散花唱良			(원문) (해독)			- 월명사, 「	E솔가」에서
	今	日	此	矣	散	花	唱	良
뜻	이제	날	ol	어조사	흩을	꽃	부를	어질
음	금	일	차	의	산	화	창	량

(1) 다음 향찰 표기의 해독을 찾아보고 이 표기가 음독 표기인지 석독 표기인지 구별해 보자.

향찰 표기	해독	亜 기
今日	오놀	석독
此矣	이에	석독+음독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2) 중세 국어



고려 건국~16C 말 중부 방언을 기반으로 함.



- 1. 음운 ① 된소리 계열이 생겨남(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대립 체계 성립) 쑴(꿈), 쑬(딸), 쑬(뿔)
 - ② **성(순경음 비읍)**, △(반치음) ○(옛이용), ○(여린히읗)'사용 '성'은 15C 중반부터 반모음 ㅗ/ㅜ[w]로 바뀌거나 소멸함 고방>고와 고빙>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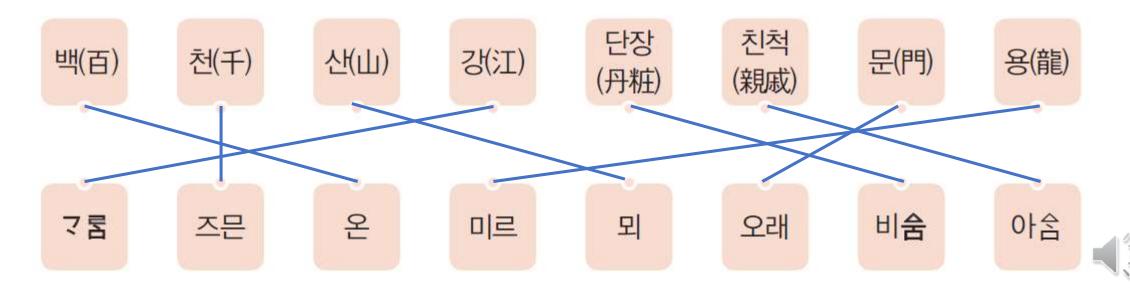
 15C 말부터 소멸 아숙>아우, 처럼>처음

1. 음운 ④ 모음 조화를 엄격히 지킴 등 양성 모음 : · , · , · · · 나는, 나를 '다가, 마군, 마골' '마가, 마군, 마골' '마가, 마근, 마골' '머거, 머근, 머글' '머거, 머근, 머글'

- ⑤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이용해 단어 뜻 구별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함 16C말에 소멸 평성과 거성 → 짧은 소리 상성 → 긴 소리
- ⑥ 어두자음군이 존재 발, 때

평성 : 낮은 소리(점 X) 거성 : 높은 소리(점 1개) 상성 :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점 2개)

- 2. 어휘① 고유어의 비중은 작아지고 한자어의 비중은 높아짐그룹>강(江), 즈믄>천(千)
 - ② 몽골어, 여진어 등에서 어휘가 차용 가라말(털빛이 온통 검은 말), 보라매(사냥에 쓰이는 매), 수라(왕의 식사)
 - 1. 다음에 제시된 고유어와 한자어를 의미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보자.



①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음

나모(나무), 나모와(나무와), 남기(나무가), 남긴(나무는)

② 주격 조사 '이'만 존재

형태	환경	O
ol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시미(심+이) : 샘이
I	'ㅣ'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톄(부텨+ I) : 부처가
Ø	' l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불휘+Ø) : 뿌리가



③ 목적격 조사

형태	환경	
을/을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바불(밥+울), ᄠ들(뜯+을)
를/를/a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나룰(나+룰), 너를(너+를), 머릴(머리+ ㄹ)

④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이/의	평칭의 유정 명사 뒤	< < □ = < 삼+이(사슴의), 거부븨=거붑+의(거북의)
 Д	무정 명사 뒤 높임의 유정 명사 뒤	부텻(부처의), 나못(나무의)

→ 동물, 사람

⑤ 명사형 어미 '-옴/움 '앙-+ -옴 → 안좀, 열-+ -움 → 여름

⑥ 의문문

구분	환경	I
설명 '-뇨', '-료' 등의 종결어미		므슴 마룰 니로노 <mark>뇨</mark>
의문문	체언 뒤에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	엇던 사름 <mark>고</mark>
판정	'-녀', '-려'등의 종결 어미	늘구미 잇ᄂ <mark>녀</mark>
의문문	체언 뒤에 붙는 의문 보조사 <mark>'가/아'</mark> 에 의해 실현	너희 <mark>종가</mark>

⑦ 높임 표현 :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

- 주체 높임법

- -샤- : 모음 어미 앞

- -(으)시- : 자음 어미 앞

-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 - 굽 : ㄷ, ㅌ, ㅈ, ㅊ 뒤

숩 : 모음, ㄴ, ㅁ, ㄹ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이 나타나서 술, 줄, 술 의 형태가 됨.

__ -잇- : 의문형



형용사 어간 + Ø

⑧ 시간 표현

과거: 선어말 어미 발달X, 과거 회상 -더-

미래 : -(으)리-

⑨ 선어말 어미 '-오-': 1인칭 화자일 경우

내 ~ 아노라(안-+-<mark>오</mark>-+-라)

4. 표기법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한글이 반포되면서 비로소 우리말을 온전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탄생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의 원리로 채택된 것은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였다.

형태음소적 원리 (단어 형태 고정)

음소적 원리는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곶[花]'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항상 고정해 표기하지 않고 실제 소리 나는 대로 '곳, 고지, 곳도' 등으로 표기하는 원리이다.

이어적기 = 음절적 원리는 각 음절을 표기에 정확히 반영하는 표기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사람'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되는 경우 '사람이'와 같이 적지 않고 '사락미'와 같이 적는 원리이다. 실제로 이 단어를 소리 내서 읽어 보면 둘째 음절은 [탁], 셋째 음절은 [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표기보다는 '사락미'라는 표기가 음절 구조를 더 정확히 반영한 표기이다.



4. 표기법

- 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 ② 8종성법
 - 4.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해에서 받침 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 활동을 통해 중세 국어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つらにレロロスマ 八字可足用也 如**リ**妥爲梨花 **영**의巬爲狐皮

而入字可以通用 故只用入字

8종성법

'ㄱㅇ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로 족히 쓸 수 있다. '빗곶'은 '배꽃'이, '영의갖'은 '여우의 가죽'이 된다. 하지만 'ㅅ' 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ㅅ' 자로 만 쓴다.

(1) '빗곶'과 '엿의갗' 대신에 어떤 표기를 선택한다고 하였는지 생각하여 괄호를 채워 보자.

형태음소적 원리・빗곶→("빗곳")

· 영의갖 → (<mark>영의갓</mark>) 음소적 원리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2) 중세 국어

> 학습 활동

다음은 「석보상절」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주격조사 '이': 자음 뒤 부사격 조사

須達の中時四金叟日

현대 국어에는 없는 순경음 비읍 존재

수달이 부처께 아뢰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높임의 호격 조사 ㅎ종성 체언(나라ㅎ)

모음 뒤 -샤-목적격 조사: 자음 뒤 "如來하우리나라해 ③ 오샤 衆生의 邪曲을 덜에 호쇼셔."

오셔서 중생의 사곡을 덜게 하십시오. 여래시여 우리나라에 (요사스럽고 교활함) 부사격 조사 '애'

모음조화

관형격 조사 -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모음조화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2) 중세 국어

학습 활동

2. 다음은 "석보상절」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주격조사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모음 뒤 -샤-

世尊이 니루시티 세존이 이르시되

두음법칙 X

이어적기 구개음화 X

주격조사 'ㅣ': 'ㅣ'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出家 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않으니, 거기에 정사가 없으니 어디로 가겠는가 (정신을 수양하는 곳, 절)

須達이 술보디 수달이 아뢰되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 웁 -- 나+ | (주격 조사) 모음 뒤 순경음 비읍으로 바뀜

'내 어루 ⓒ'이 락슨 불리이다."

"내가 능히 (정사를) 짓겠습니다." 상대 높임 : 평서문

(1)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고 '이'만 쓰였다. 현대 국어라면 '가'가 쓰일 자리에 '가'가 쓰이지 않은 예를 찾아보자.

精舍 | (精舍가), 내(내가)

(2) ③과 ⓒ에 쓰인 중세 국어의 높임법에 관해 탐구하고, 아래의 표를 완성해 보자.

구분	선어말 어미	예	높임의 대상
상대 높임	-6]-	이란 수 보리이다	세존
주체 높임	ー人‡ー	오샤	여래
객체 높임	- 含 -	이로 수 보리이다	정사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존을 높임

3.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통해 중세 국어의 시제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③ 이**희** 아돌돌히 아비 <u>죽다</u> 듣고 [현대어 역] 이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mark>죽었다</mark> 듣고

- 월인석보 권 17, 21장
- ① 하늘히며 사람 사는 **짜호** 다 뫼호아 세계(世界)라 호나니라 [현대어 역]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 「월인석보」 권 1,8장

© 내 이제 분명(分明)히 너 두려 <u>날오리라</u> [현대어 역]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 '석보상절' 권 19, 4장

(1) 위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현대 국어를 찾아서 시제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시제
죽다	죽었다	과거
ㅎ 누니라	한다	현재
닐오리라	말하겠다	미래

(2)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를 확인하여 표로 정리해 보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Ø 또는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리-